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코미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가정의 달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덕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⑨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그랜드 푸르른 날에> 40 어린이날 기획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페셜	30 복면가왕 스페셜	10 동상이몽 관철아 관철아 스페셜(재)
⑩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어린이날 특집 제3회 초록 동요제			50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재)
⑪ 3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재)			40 2015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⑫ 40 채널 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미국 휴스턴>(재)	40 월화드라마 <후야유-학교 2015>(재)		00 SBS 뉴스 10 아빠를 부탁해 스페셜
① 5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어린이날 특선 반려동물 단짝(재)	50 2015 프로야구 <넥센 vs 삼성>	40 MBC 뉴스 50 MBC 스포츠 2015 KBO리그 <LG vs 두산>	50 2015 프로야구 <SK vs 롯데>
②				
③ 00 직언직실	10 어린이날 특선 애니메이션 <로보텍스>			
④ 20 쾌도난마	10 다큐공감 <황금어장이 열리는 날>			
⑤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10 어린이날 특선 다큐 <아름다운 비행>	30 위기 탈출 넘버원	35 MBC 이브닝 뉴스 50 세계 최고를 찾아서 스페셜	00 SBS 뉴스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재)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덕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⑦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자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⑧ 20 갈때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반려동물 극장(단짝)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남도의 보물
⑨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20 세상발견 유레카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성장다큐멘터리 3부작 <5월 아이들 제1편>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후야유-학교 2015>	00 월화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⑪ 00 모큐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30 청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제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⑫ 10 나는 몸신이다(재)	25 독립영화관 <2015 전주 국제영화제 기획 2-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아웅정 PD의 요리인류 키친(재)	10 MBC 뉴스24 20 무한도전 어린이집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멤버 각자 발전한 모습에 뿌듯”

‘루저’ ‘배배’ 폭발적 인기 ‘빅뱅’ 기자간담회

그들 빅뱅의 음악적인 변화와 실험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하게 만들 정도다. 빅뱅이 3년 만에 발표한 신곡 ‘루저(Loser)’와 ‘배배’(Bae Bae)를 듣고 뮤직비디오를 본 이들이라면 말이다. 지난 1일 발매된 두 곡은 4일째 국내 음원차트 1, 2위를 휩쓸었고, 아이튠스 등 해외 차트도 석권했다. “사람에 감사하지만 차트의 성적이 자랑스럽진 않아요. 예전에는 미국 빌보드에 오를 수 없는 나무였지만 지금은 국내 많은 가수의 노래가 (해외 차트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보람은 차트라기보다 이상적인 결과물을 냈을 때인 것 같아요.”(지드래곤)

4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빅뱅은 국내외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멤버들과 오랜만에 작업하며 각자 발전한 모습을 확인해 뿌듯하다고 강조했다.

탑과 지드래곤은 “어떻게 나와야 새로울까 고민한 앨범”이라며 “멤버들이 그 사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든든하게 작업했다”고 말했다.

‘루저’와 ‘배배’는 오는 8월까지 매달 1일 신곡을 공개하는 싱글 프로젝트의 첫 작품으로 곡의 구성과 사운드 디자인, 가사가 재기 발랄하다.

‘루저(LOSER) 외톨이/센 척하는 겉집이/못된 양아치/거울 속에 너~’으로 시작되는 ‘루저’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청춘에 대한 위로가 감성적인 멜로디에 실렸다. 반면 ‘배배’는 ‘베이비 베이비/ 지금처럼만/아름다워 줄래 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설렘 수 있게~’라며 연인과의 사랑을 지금처럼 이어가길 바라는 남자의 이기적인 마음이 새로운 시선으로 표현됐다. 그러나 모두 외롭지만 찬란하고 치열한 청춘의 자화상을 그렸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새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낼 때마다 화제가 되는 팀답게 이번에도 의견이 분분한 대목들이 있다. 특히 ‘배배’는 노래 가사는 물론 빅뱅이 처음 찍은 ‘19군’ 뮤직비디오란 점에서 팬들의 ‘리액션’(Reaction)이 쏟아지고 있다. ‘영원히 넌/ 스물다섯이야 내게/ 벤치 앉아/ 배배 오 곱하기 오 배배(BABE 5×5 BABE)~’란 가사가 지드래곤과 열애설이 난 25세의 일본 모델 미즈하라 키코를 지칭하는 것 아니냐.

지드래곤과 탑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25살로 지칭했을 뿐”이라며 “이 노래를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떠오른 테마가 25살이었다.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풋풋한 사랑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 또한 성적 판타지를 충천연색 화면에 버무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절대 야하지 않으면서도 성적 상상



신곡 ‘루저’와 ‘배배’로 3년만에 돌아온 그룹 ‘빅뱅’

을 불러일으키는 재치가 돋보인다. 찹쌀떡이 우주 공간에서 부딪히는 장면, 영화 ‘뽕’이나 ‘애마부인’ 시리즈에서 나올 법한 한복 치마를 들추고 말을 타는 장면, 외국 모델들이 한복을 입고 멤버들과 강강술래를 하는 모습 등은 한국적인 모티브를 담아 키치하면서도 기발하다.

탑은 “성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장면 없이 추상적”이라며 “음향보다 유머러스하고 야망가르드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달에서 ‘아이스케키’(치마를 들추는 것)를 하고 강강술래를 하는 상상들을 상상했다”고 웃었다.

“상상할 때가 가장 아쉽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랑 노래이지만 비디오는 엽기적이면서도 재미있게 풀이했을 때 듣는 맛에 보는 맛이 더해질 거라 여겼죠. 볼 때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면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에 찹쌀떡, 강강술래 등 한국적인 테이스트를 넣어 외국인도 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는데 문화적인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지드래곤)

멤버들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20년이 지나도 빅뱅과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데 대해서도 영리한 답변을 내놓았다.

美 매체, EXID 영어 억양 조롱...인종차별 논란

소속사 “TMZ에 불쾌감 어필 하겠다”

미국 연예 매체가 한국 걸그룹 이엑스아이디(EXID)의 영어 억양을 조롱하는 동영상 게재해 비난을 사고 있다. 미국의 연예 전문 매체 TMZ는 뮤직 페스티벌 참여차 LA국 제공항에 온 이엑스아이디의 인터뷰를 “TMZ on TV”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TMZ on TV”는 TMZ닷컴 기자들이 모여 그날의 연예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한 백인 여가주는 이엑스아이디의 멤버 정화가 환영 인파를 보며 “아임 소 해피(I’m so happy)”라고 말하자 이를 조롱하듯 따라 한다. 이에 다른 기자들도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며 동양인의 영어 억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왜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방송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기자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 그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봐야 한다’, ‘정말 안하무인이다’라는 댓글을 달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 한국 걸그룹 f(x) 멤버 엠버도 4일 트위터에 “TMZ의 철없고 예의 없는 행동에 모든 미국인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에 처음 공연한 정화가 공황에 나온 팬들을 보고 기쁜 나머지 ‘아임 소 해피’라고 한건데 그 억양을 조롱하다니 인종차별이란 생각이 든다”며 “이번 행사를 주최한 현지 매체를 통해 TMZ에 불쾌한 감정을 어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6일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코미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덕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⑨ 00 신문이야기 들쭉구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그랜드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아웅정PD의 요리인류 키친(재)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⑪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중국 아름다운 사람들 55 바른말 고운말	10 수목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재)	00 TV 속의 TV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속세>(재)
⑫ 4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세바퀴 스페셜	00 SBS12뉴스 45 덕터 365 55 건강클리닉
① 5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세상의 모든 다큐	30 키즈 사이언스5(재)	
②	00 오늘, 미래를 만나다 <토마스 프레이 1편>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역사저널 그날(재)	30 똑?똑! 키즈스쿨	05 날씨와 생활 10 영재발굴단
③ 00 직언직실	00 우리말 겨루기 55 튼튼생활제초	45 후토스(재)	00 MBC 뉴스 10 과학마술단 40 양코리 특선큐멘터리 허균으로 만나는 중국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사이드
④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TV, 책을 보다(재) 50 세계인 스페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우치원 공대공	25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재)	00 이야기 보따리 30 루기리 탐구생활
⑤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애니월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덕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⑦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필 통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자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⑧ 20 관찰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⑨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성장다큐멘터리 3부작 <5월 아이들>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00 수목미니시리즈 <영그림>	00 드라마 스페셜 <범새를 보는 소녀>
⑪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윤건희의 더 콘서트	10 특선영화	15 MBC 뉴스특보 2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⑫ 40 먹거리 X파일(재)	50 동행(재)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 라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5일(음 3월 17일 辛巳)

<p>子</p> <p>48년생 희망적이고 알차게 진행 되리라. 60년생 결정을 내렸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72년생 현행대로라면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84년생 재앙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83, 51</p>	<p>午</p> <p>42년생 장고한다면 점된 결론에 이른다. 54년생 가까스로 전환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66년생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면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다. 78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 한다. 행운의 숫자 : 71, 21</p>
<p>丑</p> <p>49년생 순발력이 절실한 요구되는 상황이 펼쳐지리라. 61년생 가까이 다가오는 이가 보이나 인연이 바하다. 73년생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일하자. 85년생 현재에 대한 실책보다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에 의미를 두자. 행운의 숫자 : 52, 13</p>	<p>未</p> <p>43년생 작은 일에 발목이 잡혀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55년생 제대로 실행한다면 실속 있는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67년생 가볍게 주고받는 말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79년생 소통이 필요한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22, 58</p>
<p>寅</p> <p>38년생 지나간 일을 되돌아본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50년생 가치를 극대화 시키자. 62년생 핵심 내용에 부실함이 보인다. 74년생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의 부피가 훨씬 더 크다. 86년생 다양한 변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4, 44</p>	<p>申</p> <p>44년생 제대로 능력을 발휘한다면 기쁨이 마련되리라. 56년생 분명히 해결될 것이니 불안감은 떨쳐버려도 된다. 68년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쉽게 융합 할 수 있느니라. 80년생 지장이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76, 87</p>
<p>卯</p> <p>39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 51년생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63년생 맹점을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시도가 필요하다. 75년생 즉시 받아들여도록 해야겠다. 87년생 기교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03</p>	<p>酉</p> <p>45년생 바로 코앞에 있는 이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57년생 특별함이 없다면 대중소이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69년생 일관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81년생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만 기만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8, 36</p>
<p>辰</p> <p>40년생 길한 빛을 띠기 시작 했다. 52년생 이익은 생기자만 소량에 불과하니 크게 기대 하지는 말라. 64년생 예기치 못한 걱정거리가 생겼다. 76년생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의의적으로 추론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3, 19</p>	<p>戌</p> <p>46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58년생 확신을 해도 될 정도의 길정이 보인다. 70년생 점점 세분화 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띤다. 82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회가 현실로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37, 90</p>
<p>巳</p> <p>41년생 실리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53년생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하였으니 누가 뭐라 해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직접 가서 살펴보고 판단하자. 65년생 수습의 국면으로 접어들다. 77년생 현실적으로 대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1, 05</p>	<p>亥</p> <p>47년생 부족하니 속히 보완토록 하자. 59년생 순간적인 성급함이 결정적으로 손재수를 야기하리라. 71년생 불상이 참신하다면 결과의 차이는 클 것이다. 83년생 물심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11</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팀” ☎010-9790-8237